

 국토교통부		<h1>보 도 자 료</h1>	
		배포일시	2018. 4. 2. (월) / 총 3매 (본문 3)
담당 부서	주거복지정책과	담당자	· 과장 김홍목, 서기관 이중기, 사무관 엄지희 ☎ (044) 201-3352, 3358, 3360
보 도 일 시		2018년 4월 3일(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인터넷은 4. 2.(월) 14:00 이후 보도 가능	

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 출범...주거복지 로드맵 본격 추진 연내 신혼부부·청년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지원 방안 마련

-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주거복지 정책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, 중장기 계획인 ‘주거복지 로드맵’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주거복지 정책을 전담할 ‘주거복지정책관’을 신설했다.
 - 그간 국토교통부 내 주거복지 정책은 ‘03년 주거복지과(본부), ‘04년 국민임대주택건설기획단(별도 조직)이 설치된 이래, 본부 1개과(이전 주거복지기획과)와 별도 조직인 공공주택건설추진단(‘09년), 뉴스테이추진단(‘16년)으로 분산 추진되어 왔으나, 이번에 본부 직제로 주거복지정책관이 신설되면서 위상이 크게 강화됐다.
- 주택토지실 아래에 설치되는 주거복지정책관은 주거복지정책과, 공공주택총괄과, 공공주택지원과, 민간임대정책과 등 4개과와 별도 조직(1개)인 공공주택추진단으로 구성된다.
 - 본부 내 1개과(이전 주거복지기획과)에 불과하던 주거복지 담당 부서는 4개 과로 확대되고, 별도 조직인 공공주택추진단은 사업승인 등 집행 중심 조직으로 재편되며, 뉴스테이추진단은 폐지된다.

- 주거복지정책과는 중장기 주거복지 정책 수립과 신혼부부, 청년 등 특정 계층 주거지원 사업 관련 정책과 더불어 저소득 취약 계층 주거지원의 핵심인 주거급여 관련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다.
- 공공주택총괄과는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밝힌 향후 5년간 공급될 65만 호의 공공임대와 15만 호의 공공분양 주택 공급의 총괄적인 지휘 본부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.
- 공공주택지원과는 공공주택 관리와 운영 관련된 업무와 더불어 매입·전세임대 관련 사항을 주로 담당하고, 민간임대정책과는 기존 기업형 임대주택에 공공성을 강화한 공공지원형 임대주택 업무와 민간임대 공급 활성화 정책 등을 맡게 된다.
- 별도 조직으로 유지될 공공주택추진단은 공공주택 택지개발 및 건설과 관련한 승인 업무와 공공주택 디자인 업무를 주로 담당하게 될 예정이다

□ 국토교통부는 4월 2일(월) 오후 세종청사에서 주거복지정책관 출범을 기념하는 출범식과 현판 제막 행사를 가졌다.

- 이날 행사에는 김현미 장관을 비롯해, 한국토지주택공사(LH), 주택도시보증공사(HUG), 한국감정원 등 유관기관 기관장, 주거정책심의회 위원들이 참석했다.

□ 김현미 장관은 이날 출범식에서 “국민의 주거권 강화를 위해 주거복지정책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.”라는 것을 강조하며,

- “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주거안전망 마련과 보다 든든한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정책 추진에 주거복지정책관,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과 국토연구원 등이 한마음 한뜻으로 협력해 줄 것”을 요청했다.

- 국토교통부는 주거복지 정책 추진을 위한 조직이 새롭게 구성됨에 따라 지난해 11월 발표한 ‘주거복지 로드맵’ 가시화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.
- 이에 따라, 순차적으로 청년, 신혼부부, 고령자, 취약계층 등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지원 방안을 구체화하여 사각지대 없는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주거복지 정책과 엄지희 사무관(☎ 044-201-3360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